

선운사 동백나무

쌍봉사 단풍나무를 내보낸 뒤 아쉬움이 남아 선운사 동백나무를 이어 쓴다. 최근 화재로 손실된 낙산사며 향일암을 생각한다면 목조 건축물의 대표 격이라 할 사찰의 방화(防火)에 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이다.

목재에서는 세월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져나간다. 목조건물 일색인 사찰은 산불 앞에서 화약고나 다를없다. 그래서 유서 깊은 절들은 산불에 대비하는 전통도 남다르다. 수분이 많아 쉽게 타지 않는 수종으로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를 조성하는 한 편,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도록 한 공간 즉, 방화대(防火帶)를 만들어 두었다.

고창 선운사에는 500년 이상 자란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하얀 눈 속에서도 빨간 꽃봉오리를 볼 수 있어 잘 알려진 선운사 동백나무는 원로 시인의 시로서, 이름 날리던 가수의 대중가요로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된 것 같다.

대웅전 뒤로 울창하게 조성된 동백나무는 실은 관상용이 아니라 산불이 절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내화림으로서 이미 조선시대에 가꾸어진 것이다. 동백나무 숲은 대낮에도 킁킁할 정도로 수관이 뻣뻣하고 잎이 두툼하여 불에 강하기 때문에 산과 사찰의 경계에 띠 모양으로 심어줌으로써 화마가 사찰에 미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선운사는 또 대웅전에서 동백나무 숲까지 15m 이상 공간을 띄워 산불이 동백 숲에 옮겨 붙는다고 해도 절 마당까지는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발열량이 커서 산불에 취약하다. 소나무는 불이 났을 때 가장 잘 타는 나무 가운데 하나이며, 삼나무나 편백림도 그 다음으로 불에 타기 쉽다. 낙산사가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소실된 것도 절을 둘러싼 소나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는 잎이 두껍고 수분함유율이 높아 사철 산불의 진행을 최대한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단풍나무는 수피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방화기능이 뛰어나다. 화두목으로 부르는 은행나무도 불에 강한 편이며, 이 밖에 고로쇠나무, 음나무 등도 불에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낙산사 화재 이후 새삼 조명된 내화수림대는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이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사찰에 불이 났을 경우 이 불길이 숲으로 쉬이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내화수림대와 더불어 화재방호에 큰 역할을 하는 “방화대”는 잔디 외에 아무 것도 심지 않은 공간을 말하며, 낙산사 화재 이후 조계종이 권장한 방화대의 폭은 50m이다. 방화대 바깥에 있는 가장 큰 나무의 높이를 25m로 보고,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쓰러졌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리를 나무 높이의 2배로 잡은 값이다.